

物質文明 有感

或說에 의하면 人類物質文明의 開花는 인간이 道具를 사용할줄 알게되고 불을 발견하게 되는데 비롯되었다고 한다. 인간은 연장 즉 機械를 발명하여 처음에는 人力으로, 다음에는 使役動物, 水力, 風力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財貨를 만들었고, 끝내는 火力로 얻어진 蒸氣와 電氣의 힘을 빌어 복잡하고 규모가 큰 생산시설을 움직여 오늘날 우리가 享有하는 物質文明을 이룩하였다.

이 물질문명의 善惡 내지는 可否에 대해서 哲學的, 道德的 혹은 宗教的인 입장에서 深奧한 論理를 전개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그야말로 物質的인 면만 고찰하기로 한다면 도구와 動力을 구사하는 우리의 生産活動 위에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인류는 有史以來 더욱 많은 財貨와 用役을 값싸고 좋고 쉽게 생산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또 이에 成功하였음을 자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生을 營爲하고 있는 現代經濟社會는 效率的인 生産활동을 통하여 財貨와 用役을 創出하고 이를 能率的으로 分配하는 이른바 經濟活動에 그 토대를 두고 있고, 또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대경제사회에 있어서 財貨와 用役의 創出과 그 유통의 원활화, 그리고 生産性 향상의 주역을 맡아온 것은 다름아닌 現代的 企業이라고 할 수 있다. 企業은 그것이 公企業이든 私企業이든간에 모두 競争的으로 현대적인 生産技術과 經營手段을 구사하여 우리의 衣食住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史上類列 없는 오늘날의 豊요와 安樂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사실 企業活動을 빼놓은 經濟活動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현대경제사회의 주역인 現代企業體의 生産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豊부하고 저렴한 原料와 燃料, 그리고 日進月步하는 科學技術에 의해 개량되고 대형화 되어온 生産手段의 3대요소이다. 그런데 얼마전부

터 이 3대요소중 原料와 특히 燃料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豊부하지도, 低廉하지도 않게 된 것이다. 生産기술만 높이고, 經營方法만 개선하고, 市場만 확대해나가면 原料나 燃料은 언제 어디서나 값싸게 求得할 수 있다는 식의 企業經營은 통하지 않는 때가 와버렸다.

그럼, 원료와 연료가 비싸지고 구하기 힘들어지면 그동안 누려온 豊요와 안락은 사라지고 現代物質文明은 虛構化되고 企業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단 한가지, 기업이나 소비자가 모두 힘을 합쳐 原料나 燃料를 節約하는 한편 다른 것으로 代替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科學技術과 方法을 동원하여 創出해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각처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만일 企業이 燃料節約을 위한 施設의 改補修, 연료와 원료를 절감하기 위한 工程의 발명이나 도입, 代替에너지의 개발과 사용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실패하면 企業은 설 땅을 잃고, 그 결과로 文明도 衰退하고, 貧困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한편 道具를 발명하고, 불을 발견하고, 電氣를 制御하고 급기야는 제3의 불인 原子力까지 이용하게 된 지혜로운 人類는 반드시 오늘의 에너지危機도 슬기롭게 克服할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危機에 대한 대처를 게을리하거나 사태를 安逸하게 다루는 社會나 企業은 상대와의 경쟁에서 脫落하게 된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다.

재삼 天賦의 그러나 한정되어 있는 지구상의 物質과 에너지節約을 다짐하고 이에 企業이 앞장서주기를 당부한다. 節度있는 企業風土가 이 땅에 조성될 때 우리 인류는 豊요와 안락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威秉昭·大韓石油協會 副會長> *